

TASAKI

타사키 X 프라발 구룽

“타사키 아틀리에(TASAKI Atelier)”

타사키 X 프라발 구룽 "타사키 아틀리에(TASAKI Atelier)" 라인은 1920년대 파리에서 시작된 초현실주의 예술 운동에서 영감을 얻었다. 초현실주의는 세계 1차대전 중 발생한 예술 운동인 다다이즘으로부터 발전되었으며, 이 운동의 참가자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논리와 근거 그리고 심미주의를 반대하며 폭력, 전쟁 그리고 보수주의의 대한 그들의 불만에 응답하는 안티 브루조아의 생활 방식을 지지하였다.

약 1세기 전 초현실주의가 시작되는 동안,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막스 클링거(MAX KLINGER),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호안 미로(JOAN MIRO) 그리고 가장 주목할만한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등 훌륭한 예술가들의 작품은, 동시대 여성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자질에 초점을 둔 현대적 현상으로 승화되었다. 줄리 커티스(JULIE CURTISS), 케이틀린 키오그(CAITLIN KEOGH), 켈리 아카시(KELLY AKASHI), 키키 스미스(KIKI SMITH) 등 여성 거장들에 의해 선보여진 초현실 예술은 파괴된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역설과 저항, 자기 창조를 위한 수단이 되어 여성을 강렬하고, 지각적이며 생각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여성이 그녀들의 신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그들 자신이 매우 건강함을 내세워야 함을 강조한다.

프라발 구룽 X 타사키의 첫 번째 컬렉션은 마치 꿈같은 상태의 초현실적 렌즈를 통해, 미학과 모더니즘 운동의 메시지를 꾸뛰르적으로 접근한다. 각각의 제품은 기쁨 속에서 찾은 보물 그리고 수공예로 제작된 독특한 유기적 곡선과 그래픽 선처럼 다뤄진다. 전통의 틀을 깨으로써 그 아름다움은 보는 이들의 눈에 더욱 빛난다. 각 피스들은 화이트 골드와 SAKURAGOLD™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색의 빛을 더하는 아주르(청금석), 시트론 그리고 코랄 컬러의 사파이어가 어우러져, 무의식 속에서 찾고자 하는 극한의 아름다움에 대한 여정을 함께하게 한다. 닷과 로프에서 받은 모티브를 토대로 선보여지는 이번 컬렉션은 전통과 현실로 되돌아가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유산 그리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